

포스텍, 과기한림원 정회원 2명 배출

신일권 기자 nanaconan@ksmnews.co.kr | 입력 | 수정 2024.12.02 19:42

| 한세광 · 노용영 교수 선정



↑ ↑ 왼쪽부터_한세광교수_노용영교수

[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 POSTECH(포항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과-융합대학원 한세광 교수, 화학공학과 노용영 교수가 2025년도 한국과학기술원 공학부 정회원으로 선정됐다.

과기한림원은 20년 이상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오고 있는 연구자들을 매년 정회원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선정과정에서 표한 논문 10편에 대한 독창성과 학문적 영향력, 기여도를 자세히 평가한다.

한세광 교수는 생체고분자 및 나노소재를 활용하여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스마트 콘택트렌즈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개발해 헬스케어 분야에 기여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약물 전달 및 재생 의료 융합 연구를 통해 암과 당뇨, 관절염 등 난치성 질환의 진단과 치료 시스템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 노용영 교수는 고성능 N형 및 P형 반도체 소재 연구를 통해 반도체 소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주석(Sn) 페로브스카이트 P형 반도체와 고성능 트랜지스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노 교수의 연구는 2023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전자정보 분야에 선정되었으며, 과학기술훈장 도약장을 수훈했다.

한편, 과기한림원은 지난 29일 정기총회에서 POSTECH 한세광 교수와 노용영 교수를 포함해 내년도 정회원 36명을 선출했다.

